

“터미널은 공익시설, 분리매각해야”

대한통운 인수 3파전 치열 ... 경제·시민단체 지역경제 영향 고려 촉구

롯데·CJ에 이어 포스코 경영진도 직접 나서 대한통운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인수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한통운의 자회사인 금호터미널도 매각 대상이어서 광주·전남지역의 관심이 더 높다. 지역사회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의 분리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 “동반성장 든든한 파트너”=최종대 포스코 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5월 예정인 대한통운 본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포스코로서는 대한통운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자금은 외부 조달 없이 회사 내 보유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을 1분기 영업이익의 1조원을 밑돌았

던 포스코는 가격 인상 등을 발판삼아 올해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작년(5조470억원)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 금호터미널에 ‘군침’=인수 후보자 3사 중 롯데만 금호터미널 분리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롯데가 유통업에 뿌리를 둔 점을 들고 있다.

금호가 운영 중인 터미널은 광주 유·스퀘어를 비롯해 목포·순천·여수 터미널과 대구·포항·유성·전주터미널 등 전국 주요도시 18곳이다. 이들 터미널은 유통인구가 많은 데다 대형 유통점이 입점하기에 걸림돌이 별로 없어 마트와 슈퍼 등 신규 진출이 용이한 곳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롯데가 보다 과감한 배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채권단 일각에서도 “롯데 대세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J·신세계 컨소시엄 시나리오=롯데의 부각은 광주신세계의 침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범삼성기업인 CJ와 신세계가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대한통운은 금호터미널의 자본 100%를 보유하고 있고, 광주신세계는 금호터미널 건물에 임차 형식으로 입점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롯데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경우, 광주신세계는 금호터미널과 20년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5년 점포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유통 시너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050억원을 들여 백화점과 지하통로로 연결한 이마트 운영에도 파행이 우려되고, 향후 투자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

CJ·신세계 컨소시엄은 포스코·롯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뒤쳐지는 CJ가 협상력을 높이고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 “터미널 분리매각해야”=지역 경제계는 “당장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롯데·포스코·CJ가 금호터미널을 인수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 터미널을 폐지하거나, 더는 신규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보다는 기업 논리만 내세울 경우 점포 임대료·매표 수수료 인상 등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통운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터미널이 지역의 공익시설임에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터미널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평과세 초석다지기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경제여건이 취약한 해남서를 방문해 일선 직원 격려와 사기진작을 통해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초석다지기에 나섰다. 김 청장이 해남서 직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중소적합업종 선정 품목 촉각

시장규모 1천억~1조5천억 ... 최대 6년 정부서 보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장 규모가 1000억~1조5000억원 가량의 품목이나 업종 가운데 기업 규모의 효율성과 1인당 생산성, 경기 경쟁력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보호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접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상 업종·품목의 시장규모(출하량)를 1000억~1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이란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연식품류, 고추

장류, 재생타이어 업종이 거론된다.

이렇게 대상 업종을 1차로 걸러내고 ▲최소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대기업 협력사 피해 여부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손을 떼야 할 대기업의 범위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 집단 계열화사를 대기업으로 보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아파트 4874 가구 분양

2501가구 집들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짝 열린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광주·사랑방신문에 따르면 오는 5~6월 광주·전남에서는 8개 단지에 4874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한다. 광주는 6개 단지 2934가구, 전남은 2개 단지 1940가구 규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신탁이 5월 분양에 나선다.

LH 광주전남분부는 광주시 동구 학2지구에 공공분양 아파트 794가구를 공급한다. 494가구는 주거7단지에 제공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일반에 분양한다. 한국토지신탁은 광주시 서구 마북동에 한신 휴플러스 238가구를 분양한다. 모아주택산업은 전남 도청이 있는 무안 남악신도시에 498가구를 공급한다.

6월에는 영무건설과 골드클래스, 광명주택, 중흥건설 등의 분양이 이어진다. 영무건설은 광주 수완지구 C 16-3블록에 영무에다움 236가구를 분양한다. 골드클래스도 수완지구 C 3-3블록에 수완골드클래스 584가구를 선보인다. 옛 25~34평형 등 중소

형 단지로 구성돼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이 눈여겨 볼만하다.

광명주택은 광주시 서구 중앙동에 ‘광명 메이루즈’ 27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며, 중흥건설은 광주시 광산구 하남2지구에 옛 32평형 아파트 80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LH가 여수시 엑스포타운에 1442가구 규모의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다.

전세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에 올 2분기(4~6월) 2501가구의 아파트 집들이도 이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5월 입주할 계획이던 광주 수완7단지에 국민임대 아파트 1215가구를 한 달 앞당겨 4월 입주를 시작한다. 대방건설은 오는 6월 광주 수완지구에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442가구를, 대우건설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광주 상무 푸르지오’ 아파트 484가구를 입주한다.

전남지역에서는 LH가 다음달 무안 성내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 493가구를, 한빛건설도 다음달 광양시 광양읍에 송보파인빌 7차 아파트 867가구의 집들이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땅값 22개월 연속 ‘경중’

지난달 광주·전남 0.07% 상승 ... 거래량도 급증

광주·전남지역 땅값이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광주지역 땅값은 0.07% 올라 지난 2009년 6월 이후 2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 0.12%에서 올해 1월 0.08%, 2월 0.07%로 다소 둔화했다. 전남지역 땅값도 0.07% 상승, 지난 2009년 5월 이후 23개월째 올랐다.

토지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광주지역 토지거래량

은 6134필지, 143만2000㎡로 지난해 같은 달(5118필지, 100만 6000㎡)보다 필지 수로는 19.9%, 면적으로는 42.3% 급증했다. 전남 토지거래량도 늘어 1만 7897필지, 3288만5000㎡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만5755필지, 2738만1000㎡)보다 각각 13.6%, 20.1% 증가했다.

전국의 땅값은 전 달에 비해 0.11% 올랐다. 이는 2월의 0.09%에 비해 상승폭이 약간 커진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협, 일본 대기업 초청

부품·소재 수출 상담회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24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한·일 부품·소재 기업간 교류 확대를 위해 5월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일본 대기업 초청 부품·소재 수출상담회’를 연다

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시바기계, 히타치제작소, KYB(주), 후지코시 등 일본 대기업 4개사가 참가해 25개 품목별로 국내업체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한다. 상담회 참가를 원하는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43-94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시장 체험

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제사업부 직원 20여명은 지난 22일 담양축협 가축시장 개장에 맞춰 시장 주변 청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송아지 경매를 참관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로또복권						(제43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2	20	26	29	38	4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377,142,167		9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383,250		41
3	5개 숫자 일치			1,585,352		1,303
4	4개 숫자 일치			50,000		65,010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1,763

www.ah-english.com

원어민영어회화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인들(고소득자)은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뽕지너를 합니다
(월15만원/매25분수업)

압구정 원어민전용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고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마블아이앤씨

010-2637-9358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료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